

“2050 탄소중립 기부 릴레이 함께해요”



장흥군에서는 장흥군과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근영)이 함께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기부 릴레이에 함께해요~!!

장흥군노조, 탄소중립 위한 한그루 나무심기 다음달 말까지 기부금 모금해 숲길 만들 예정

장흥군 공무원이 앞장서 공무원 숲길을 조성하고자 장흥군공무원노조에서 건의하였다. 캠페인은 군수·군의회의장·노조위원장·부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기부 릴레이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 기념행사를 가졌으며, 기부를 희망하는 직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챌린지 형식으로 먼저 기부한 직원이 기부 후 다음 기부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오는 11월말까지 기부금이 모금되면 '2050 탄소중립 장흥군 공무원 숲길(가칭)'을 만들어 나무 식재, 군민 휴식공간 제공 등 탐강길 내 쾌적한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영 장흥군노조위원장은 "정부 방침인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자 우리 공무원이 한그루 나무를 심어 공무원 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동참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노조가 주축이 되어 정부시책에 앞장 서주신 장흥군 공무원노조에게 감사드린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노사가 소통하고 화합하여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당부하였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병영면 동성마을 은행나무 당산제 행사 재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으로 20여 년 만에 복원

지난 20일 강진군 병영면 동성마을에서 이승욱 강진군수, 김재찬 병영지역발전협의회장, 조명언 함들농협조합장, 마을 주민 3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나무 당산제가 개최됐다. 천연기념물 제385호 은행나무는 하멜표류기에 하멜 일행이 크고 오래된 은행나무를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은행나무로 추정된다. 동성마을 은행나무 당산제는 매년 음력 9월 15일 은행나무 아래에서 제를 지내며 주민화합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이 마을의 오래된 전통문화였으나, 마을회관 이전 등 여러 이유로 당산제가 수십년 동안 이어져 오지 못하고 있다가 강진군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재개됐다. 이날 20여 년 만에 열린 당산제는 은행나무 아래에 가지런히 제수를 차리고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은행나무에 정성스러운 치성을 드렸다. 김용관 동성마을 이장은 "은행나무 당산제 전통행사가 끊어져 아쉬움이 컸는데군 지원사업으로 다시 열게 되어 기쁘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은행나무 당산제 전통문화가 후대까지 계승될 수 있도록 지켜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승욱 군수는 "동성마을 은행나무는 800여 년의 오랜 세월 마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나무로 20여 년만에 재개한 당산제는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의미있는 행사라 생각한다"며 "동성마을을 비롯하여 강진군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 사회공헌활동 실시

고군면 모사마을에서 해안가 정화 활동 펼쳐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 건이강이봉사단(단장 이종욱지사장)은 지난 13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도군 고군면 모사마을에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해안가 청소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공단 해남진도지사 사회봉사단과 고군면 모사마을은 어촌마을을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바닷가 청소가 나서게 되었다. 이날 봉사단의 환경정화 활동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 진도운영센터(센

터장 흥정애)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코로나-19 안전인사법 '약수 대신 목레'등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함께 펼쳤다. 이종욱 봉사단장은 "우리 공단은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기자

완도군-산림청-전남도,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한뜻

조성·운영 사업비 확보...인력 지원 등 협력 업무 협약

완도군이 산림청(청장 최병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와 10월 22일 전남도청에서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3개 기관 기관장 외 윤재갑 국회의원과 신의준·이철 도의원, 허궁희 완도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3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운영 사업비 확보, 행정 절차 협력 및 조성·운영 인력 지원, 수목원 조성 부지 토지 교환 절차 이행, 진입 도로 개설, 직원 숙소 건립 등 연관 사업 지원 등을 공동 협력하여 수행하게 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 완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림치유와 해양치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인데, 앞으로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되면 지역 경제 등 파급력이 클 것이다"면서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전국 난대 숲의 35%가 완도군에 집중돼 있어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당위성이 타당하다"라며 "보통 대형 국책 사업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난대 생물자원의 보고인 완도군에 조성될 국립난대수목원은 대한민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이끄는 연구 거점이자 국민의 사랑을 받는 생태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면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고 밝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난대 생물자원의 보고인 완도군에 조성될 국립난대수목원은 대한민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이끄는 연구 거점이자 국민의 사랑을 받는 생태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면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해남군, 농공단지 중소기업 제품 홍보 책자 제작

해남군이 코로나19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공단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제품홍보 책자를 제작한다. 책자는 육전농공단지 및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내 식품·금속가공·비금속 광물 등 6개 분야 25개 업체의 기업 소개와 함께 기업별 주요 생산제품 사진과 설명 등을 수록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를 비롯하여, 관내 기업체, 유관단체 및 산하기관 등에 홍보 책자를 배부할 계획이며,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와 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해당 기업의 생산제품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생산제품 홍보를 통해 기업 인지도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